

August Konkel 박사, 역대기, 세션 4, 유다의 사자

© 2024 거스 콘켈(Gus Konkel)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August Konkel 박사와 역대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4회기 유다의 사자입니다.

이제 다윗은 헤스론과 람을 거쳐 베레스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아버지 이새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유다의 사자가 되기로 선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창세기 49장에서 유다가 언급되는 방식입니다. 부족의 역사.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유다의 기록에 대한 결론적인 역사를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 기록의 이 마지막 역사는 2장에 다시 나오는 이름 중 일부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물론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뛰어난 유다 가문들은 연대기 작성자에 의해 직접적인 계보적 연결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다소 거리가 멀었습니다. 역대상 2장 끝 부분에 나오는 헤브론 지역 주변의 헤시온 자손과 비교할 수 있는 갈렙 가문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두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는 갈렙의 또 다른 아들인 에담과 드고아의 아버지인 아셀이 있습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 남쪽의 다소 눈에 띄고 유명한 마을이 되었는데, 그곳은 저명한 사람들로 유명하고 때로는 지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실제로 다른 족보와 관련이 없는 야베스를 소개합니다. 야베스에게는 어떤 족보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연대기 작가가 가지고 있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연대기 기자에게 야베스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부분적으로 그의 이름의 어원 때문인데, 이는 그의 삶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자, 여기 이 도표에 야베스의 이름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야베스, 거기에 모음을 넣지 않았지만 야베스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다른 단어의 연극입니다. 창세기에는 etzev 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etzev는 뱀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신처럼 될 수 있다고 믿는 이브에게 닥치는 저주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그들은 무엇이 좋은지 알고 무엇이 나쁜지 알거나, 무엇이 좋은지 판단하고 무엇이 나쁜지를 판단하는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비유를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브에 대한 심판은 당신이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식을 실제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신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이 좋은지 결정할 수 있고 무엇이 좋은지 알 수 있지만 사실 당신이 얻게 될 것은 Etzev 입니다. Etzev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으로 볼 때 고통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즉 인간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이야기에서 이브의 삶에서 우리는 그녀의 아들 중 첫째인 가인이 그녀의 둘째 아들인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거의 즉시 그 고통이 결실을 맺는 것을 봅니다. 이제 저는 솔직히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 중 한 명이 자신의 형제를 죽이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etzev 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그녀가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은 이 단어를 말장난으로 해서 붙여졌고, 그를 etzev 라고 부르지 않고 aves 라고 불렀습니다. 4:9ff].

여기에는 두 단어가 약간만 변경되었지만 두 구절의 설명을 보면 그 의미가 매우 분명해집니다. 이 사람은 잘못된 일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잘못된 일을 많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고통을 준 사람, 고통을 겪은 사람, 큰 손실을 입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역대기 기자에게는 재가 그의 말씀이신 여호와와 이심을 구하면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면. 그래서 야베스는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는 그의 영토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이 모든 어려움을 겪는 대신에 주님께 축복을 구합니다.

역대기의 요점은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고, 고통과 손실과 모든 악한 일을 당하던 자로 알려진 야베스가 여호와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형통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 족보에 있는 것이지 족보적 연결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연결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계보에는 엄밀히 말하면 신학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참고 자료에서도 알 수 없는 이 사람에 대해 연대기가 가지고 있는 기록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요점은 어느 시점에서든 개인이나 집단이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은 그들의 고통을 극복하실 수 있으며, 그들의 경계를 확장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나는 우리 자신의 신학적 적용 측면에서 연대기 편찬자에 관해 요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특히 북미 대륙에서 우리는 흔히 번영복음이라고 막연히 언급해왔던 내용을 자주 다루었습니다. 즉, 축복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형통케 하시고 당신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예수님께서 축복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왕국은 다른 질서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축복은 고통을 통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축복은 항상 번영을 의미해야 한다고 말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물론 축복은 번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과 그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애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애도의 훈련을 경험하여 우리 자신의 인간성과 약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실제로 연대기 작가의 요점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고통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한 목자께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경계를 넓히는 것과 함께 오실 수도 있습니다. 연대기 기자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번영복음이라는 것은 때때로 이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읽혀집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형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 점에서 가장 유명한 책은 브루스 윌킨슨(Bruce Wilkinson)의 이 책일 것입니다. 읽는 데 10분 정도 걸리는 작은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야베스의 기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경계를 넓히시고 우리를 번영시키실 것이라는 뜻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물론 연대기 기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설명한 방식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연대기의 요점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번영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요점은 항상,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정말로 상실의 장소에 있다는 것을 아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브루스 월킨슨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짐바브웨 사이의 작은 나라인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에서 번영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고아와 아이들을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왕이 전체 프로젝트를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는 매우 불행하게 끝났습니다.

교회는 매우 환멸을 느꼈습니다. 사실, 브루스 월킨슨 자신도 매우 상심하게 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가 연대기 작가의 메시지를 연대기 작가가 말하려고 하지 않은 것으로 축소시켰기 때문입니다. 연대기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인간성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작동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연대기 기자의 요점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대로 여러분에게도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간의 신학적 요점을 부여한 후, 연대기 작성자는 계속해서 헤스론의 아들이 아닌 갈렙 사람들과 그니스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예부 나의 아들들인 여호수아서에서 여러분이 더 많이 알고 있는 다른 그룹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며느리 악사가 그들이 소유한 도시에 물을 공급하기를 어떻게 원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어서 유다의 유명한 그룹 중 일부가 되며, 연대기 작성자는 16~23장에 이를 나열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연대기 작성자는 계속해서 시므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또한 시므온에 대해 부분적으로 언급하는데, 그 이유는 시므온은 결코 자신의 영토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은 항상 도시이다. 그것은 유다 지역 내의 도시들이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방법이 다소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두 가지 예가 연대기 작가에 의해 제시됩니다. 하나는 히스기야 시대인데, 거기서 그들은 서쪽으로 블레셋 지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또 다른 요점은 에돔 지역이 남쪽과 동쪽으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므온 지파는 비록 자기의 영토를 완전히 갖지는 못하였지만 번영하는 지파이며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에 속한 지파입니다. 이제 연대기 기자가 왜 우리가 유다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왜 유다가 지배 지파인지 설명하기 위해 등장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르우벤은 지파의 지도자가 되려는 그의 시도가 너무 이르게 실패했기 때문에 장자권을 상실했습니다. 라헬이 죽었을 때, 그는 그녀의 시녀인 빌하를 자신의 시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본질적으로 유다가 아직 살아 있는 동안 그에게 재산권과 장자권의 지위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창세기와 이야기, 그리고 다시 49장의 시에서 언급된 유다는 지파들의 지도자가 되려는 르우벤의 공격적이고 잘못된 시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요셉에 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을 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창세기 48장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이삭이 이들을 본질적으로 자기 가족의 상속자로 지정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장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를 조사해 보면 알게 되겠지만 그들은 장자의 권리, 즉 장자권을 갖고 있으며 역사적 이스라엘 내에서 단연 지배적인 영토였습니다.

연대기 기자는 이를 인정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창세기에서 이것을 다시 취하여 이것이 요셉에게 장자권을 부여한 이삭의 결정임을 지적합니다. 물론 그 일은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선두 지파는 유다 지파가 됩니다. 선두 지파는 유다 지파가 된다. 그리고 이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는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져 죽게 되었고, 형들이 그를 애굽에 노예로 팔려고 용병 집단인 대상 집단에 팔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유다의 지시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전체 이야기에서 유다는 정말로 형제들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인 유다를 통치 지파로 삼으시고 약속의 성취처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부족들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또한 요단강 동쪽 지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입니다. 바산과 길르앗의 갓 자손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그는 다시 확장 전쟁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 아는 유일한 곳은 이곳입니다.

동방에는 이스마엘의 후손인 하갈 족속이라 불리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부족들은 그들의 영토를 사막을 향해 동쪽으로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산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포로 생활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관해 약간의 지리 정보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대기 작가가 설명하는 방식은 일반 지도에서 볼 수 있는 방식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지도를 보시면 므낫세의 영토가 가장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토의 대부분은 여기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갓이 남쪽에 더 많은 것을 보고 르우벤은 남쪽에 더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갓이 바산 지방까지 영토를 갖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므낫세를 북쪽으로 요단강의 근원이 되는 산들에 이르는 땅으로

명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스라엘의 지배적인 지파라는 점을 기본적으로 보여줍니다.

장자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르우벤 지파들은 실제로 여기 아래 아르논 강 북쪽에 있고 갓 지파는 르우벤이 있던 곳보다 조금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영역이 된다.

그들이 동쪽으로 확장할 때, 물론 저쪽 방향의 사막을 향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족의 지리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약간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르단 횡단 부족들에 대한 연대기 작가의 이야기와 그들이 결국 유배되는 방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북쪽의 유배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사르곤 2세에 의해 유배된 이후 그 부족들이 계속되는 역사를 큰 의미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가 그 계정을 떠나는 곳이 바로 그 곳입니다.

이것은 August Konkel 박사와 역대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4회기 유다의 사자입니다.